



* 알리는 말씀

1. 금주부터 살내 채운 체크를 자율적으로 전환합니다. 살내 마스크는 계속 유지됩니다.
2. 고난주간 특새: 4월 12일(화)-16일(토) 오전 6시(교구별 특송)
(화) 김인광/정진호 교구, (수) 김건엽 교구, (목) 김철우 교구, (금)황준호 교구, (토)계명환 교구
3. 성금요일예배: 4월 15일(금) 오후 8시
4. 밀알선교단 후원을 위한 참기름 판매: 1부, 2부 예배 후, 1병 \$25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 구입을 원하시면 박혜진 집사에게 연락주세요.267)294-4733
5. 피택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첫 모임: 4월 23일(토) 오전 7시
6. 목장 심방 신청 받습니다. (담임목사, 지역담당 목사)

*모임안내

1. 부활주일: 4월 17일

* 교육부 소식

초등/중등/고등부 금요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30-9:00
 여름학교: 6월 27일-8월 5일(K-6학년)
 *문의: 박반석 목사(peterpak@mybcpc.org)

* 강단헌화

박수인/은자(지혜 생일감사)
 이도찬/영금(모친 고 권정순 성도, 부친 고 김기호 성도 장례 은혜 중 마침을 감사합니다.)
 무명(담임목사님의 말씀사역과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교회로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김인환(inhwankim@mybcpc.org)
 원로목사 김풍운(pwkim529@gmail.com)
 부 목 사 김인광(행정/교구/청년) 박반석(EM) 김용성(교육/고등부)
 정진호(교구/선교/중등부)
 교육목사 이영록(초등)
 전 도 사 정승경(유아) 김은혜(유치)
 시무장로 김철우 최환식 김건엽 계명환 황준호
 은퇴장로 오상백 김영옥 이관상 조승 감내섭 김성우 최현진 윤영석 김건재 장 철 이영석
 안병민
 서도형 이규성 김학륜 김정인 김경범 김인출 양찬모 김영호
 지 휘 김주영(1부) 윤희진(2부)
 반 주 유선희(1부) 전은숙(2부)
 간 사 김경미(사무) 김흥기(관리)

집회시간안내

구분	내 용	시 간	장 소
예배	주일: 한국어 1부	오전 10시	본 당
	2부	오전 11시 30분	본 당
	EM	오전 10시	소예배실
	유아/유치부	오전 11시 30분	유아/유치부실
	초등/중등/고등부	오전 11시 30분	교육관/소예배실
	수요찬양	오후 8시	본당
기도회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시	본 당
성경공부	목장모임(매월 둘째 주)		가정에서
	청년부 성경공부(매주일)	오후 1시 30분	청년부실
	고등부(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중등부실
	중등부(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중등부실
	초등부(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초등부실
	그리스도 중심 성경공부(주일)	오후 3시	Zoom
정기모임	성경통독반(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Zoom
	위원장회의(마지막 토요일)	오전 7시	당회실
	제직회(분기별)	오후 2시	본 당
	당회(넷째 주일)		당회실

본 교회가 돕는 분들과 단체

파송선교사 김명수(케냐) 장택규(한국)
 협력선교사 유병국 (WEC 국제본부) 장석창(모로코) 이남행(한국)
 박경원(러시아) 장이삭(이스라엘) 박용현(네팔) 이준교(이집트)
 최명은(케냐) 최용기(필리핀) 김우영(몽골) 황기수(캄보디아)
 한준수(태국) 하홍중(태국) 허태영(튀니지)박민하(WBT 한국본부)
 강민숙(일본) 심재원(요르단)
 협력 단체 중등선교회 필라기독방송 미주크리스찬신문 크리스찬 타임스
 오늘의양식 동부개혁신학교 뉴비전청소년센터 크로스선교회 GPM
 밀알선교단(필라) 한국군선교회 JOY 선교회 Langhorne Garden(양로원사역)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담임 김인환 목사 Rev. Dr. Inhwankim, Pastor
 1550 S. Woodbourne Roa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8964 Fax: 215-945-2095 Email: info@mybcpc.org www.mybcpc.org

1 부: 오전 10 시

예배인도: 김인환 목사

2 부: 오전 11 시 30 분

Liturgist: Rev. Kim

- * 입 레 송 Introit

보혈을 지나

Congregation 다 같 이
- * 묵 도 Silence Prayer

Congregation 다 같 이
- * 송 영 Choral Response

Choir 찬 양 대
- * 기 원 Invocation

Liturgist 인 도 자
- *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Congregation 다 같 이
- 찬 송 Hymn

519 장(새 461 장)

Congregation 다 같 이
- 기 도 Prayer

Mr. Kye 계명환 장로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9:23-27(신약 107 면)

Liturgist 인 도 자
- 찬 양 Anthem

복 있도다, 우리 왕 호산나

Jerusalem Choir 예루살렘찬양대

종려나무 Zion Choir 시온찬양대
- 합심 기도 Prayer

Congregation 다 같 이
- 설 교 Sermon

“지고 가며 본 십자가”

Rev. Kim 김인환 목사
- “The Cross seen while carrying”
- 봉 헌 Offering

Congregation 다 같 이
- * 찬 송 Hymn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Congregation 다 같 이
- * 축 도 Benediction

Rev. Kim 담임목사

*표에서는 일어섭시다(Please Stand).

다음 주일 기도: 황준호 장로

오후 8 시

예배인도: 김인광 목사

Liturgist: Rev. Kim

- 묵 도 Silent Prayer

Congregation 다 같 이
- 찬 송 Hymn

135 장(새 150 장)

Congregation 다 같 이
- 기 도 Prayer

Mr. Park 박태병 집사
-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 26:36-46

Liturgist 인 도 자
- 설 교 Sermon

“어떤 십자가?”

Rev. Kim 김인광 목사
- 찬 송 Hymn

510 장(새 457 장)

Congregation 다 같 이
- 합심 기도 Prayer

Congregation 다 같 이
- 축 도 Benediction

Rev. Kim 김인광 목사

◆ 다음 주 기도: 김복자 권사 ◆

새벽기도회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오전 6 시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4/12(화)~16(토)

인도: 김인환 목사

기도제목

1. 담임목사의 위임예배 준비를 위하여
2. 화목한 교회, 섬기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기를 위하여
3. 계명환 교구(계명환, 김인옥, 이춘자, 장 칠 목장)를 위하여
4. 중등부 학생, 교사, 교역자(정진호 목사)를 위하여
5. 교우섬김위원회(위원장 김건엽 장로) 사역을 위하여
6. 한준수, 하홍중(태국) 선교사의 사역과 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7. 병약자들을 위하여

성경 1 독 및 성경통신과를 위한 성경

제 15 주: 룿기 3:1-사무엘상 15:35, 요한복음 9:1-13:38

고난 특새와 목양실

김인환 목사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바닥에 깔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환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환호가 있는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외침을 들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기간, 즉 종려 주일과 부활 주일 사이를 고난주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특별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고난 특새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미국에서 살면서 적당히 신앙 생활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신앙으로 나가려 하면 즉각 어려움이 닥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오지 않던 새벽기도에 나오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힘내서 참석해 보기 바랍니다. 최소한 교구 특송 때라도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무실을 “목양실”이라 부릅니다. “목양하는 방,” “양들을 돌보는 방”이란 뜻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역을 하는데요. 이곳이 성도를 만나는 공간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들어온 이래로, 계속 문을 열어 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어서, 편하게 들어오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가끔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있는데요. 제가 없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목양실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소파를 입구로 배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 책상이 구석으로 가서, 제가 드나들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목양실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편하게 앉고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커피나 차도 준비해서,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 조금 어수선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언젠든 목양실에 편하게 들어오시길 초청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말씀 나누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 가까이 만나고, 친밀해지고 싶습니다.